

지역 소식통



정읍시, 골목길 야간 위치표시등 설치

정읍시가 학교 주변과 아파트, 주택 밀집지역 골목길에 야간 위치표시등을 설치했다.

시는 "정읍여고와 서영여고, 부영1차 아파트 후문, 구미동 주택 밀집지역에 총 3천만원의 들여 617m에 375개의 발광형 태양열 표지등을 설치해 안전 취약지역과 우범지역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 발생 등을 통해 여성들의 안전 대책이 대두됨에 따라 여성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CPTED)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며 "여성들의 야간 안전취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생기 시장은 "앞으로도 안전 사각지대의 불안감과 폭력 범죄 발생 요인을 미리 제거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특히 여성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편하고 안전한 정읍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교월동, 시조기 종식 위해 정월대보름 행사 취소 결정

김제시 교월동(동장 김태환)은 AI 조기 종식을 위해 오는 11일 정월대보름에 개최 예정이었던 입석줄다리기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AI 발생은 소강상태이지만 사람이 많이 모일 경우 AI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으로 금년에는 정월대보름 행사를 생략하고 주민들이 선물을 줄을 새 것으로 갈아 입히는 줄매기와 당산제를 지내는 것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한편 줄다리기 행사 후 줄매기를 하는 선술(立石)은 삼국시대 벽골제를 쌓고 그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1974년 전라북도 민속자료 제7호로 지정됐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정읍시, 축산농가 용자 100억 지원

신규 사료 구매·기존 외상금액 상환용 연이율 1.8%,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

정읍시가 올해 100억원을 축산농가에 용자 지원한다.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과 가축 전염병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사료 구매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지원하는 용자금 용도는 신규 사료 구매와 기존 외상금액 상환용으로, 연이율 1.8%,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허가(등록)제에

참여한 한우우와 젓소, 돼지, 닭, 오리, 기타 가축(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을 사육하는 축산 농가 및 법인이다.

농가 당 지원 한도는 한우우와 낙농, 양돈, 양계, 오리는 6억원(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는 9억원), 기타 가축은 9천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 20일까지 읍·면 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통해 사료 구매 자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며

"사육두 수와 대출 잔액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사 자료 구매 자금 선정 추천서를 발급받아 지역 농·축협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가 확보한 100억원은 전라북도 439억원의 23%에 해당되며 도내 첫 번째 규모이고 시는 지난해에도 258농가에 102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 하우스디' 수요자 관심집중

건본주택 오픈 첫날부터 입주자들로 인산인해

전북 김제에 공급되는 대보건설의 김제 하우스디가 건본주택 오픈 첫날부터 인산인해를 이뤘다.

그동안 신규공급이 거의 없던 김제시에서 분양한 만큼 김제 하우스디에 수요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몰렸으며, 건본주택에는 개관 첫날인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약 7천여 명이 방문해 성황을 이뤘다.

모델하우스 오픈 첫날인 3일 이른 아침부터 방문객들이 물러와 긴 줄이 이어졌으며 주말에는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객들이 방문해 모델하우스 내부는 유닛을 살펴보는 수요자와 상담을 받으려는 대기 고객들로 북적였다.

전북 김제시 옥산동 297-1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김제 하우스디'는 지하 1층 ~ 지상 20층, 4개 동 총 248가구 규모이다.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0㎡로 전 가구를 조성하며, 대보건설의 'hausD' 스타일을 도입해 높은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제 하우스디'는 단지 바로 앞 도시계획시설로 조성되는 소공원이 위치해 쾌적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다. 또 전 세대 선호도 높은 80㎡ 평면에 쾌적함을 더하는 4Bay (일부세대)와 기존 저층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필로티 설계를 적용해 탁트인 개방감까지 제공한다.

김제시 도심에 위치한 이 단지는 인근에 김제시청, 교월동 주민센터, 김제시보건소, 김제시립도서관 등 각종 공공시설이 있어 편리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단지 인근에는 김제중앙병원과 김제전통시장 등의 생활권의



김제에 공급되는 대보건설의 '김제 하우스디'가 건본주택 오픈 첫 날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단지 바로 앞 도시계획시설 조성되는 소공원이 위치 쾌적하고 여유로운 생활 가능

저층 문제점 보완 필로티 적용 단지 인근 김제중앙병원 등 위치

김제초·김제고 등도 위치해 교육환경도 우수

시설도 조성돼 있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주변에 김제초등학교를 비롯해 김제중앙중학교, 김제고 등이 위치해 있다.

교통환경도 뛰어나 단지 앞에 위치한 벽지산로를 통해서 김제시내?외로의 접근성이 양호하며, 시내권역으로의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다. 향후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2곳의 나들목 분기점(북김제IC, 서김제 분기점)을 통해 새만금, 군산, 전주 등으로의 광역교통망이 크게 개

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제 하우스디'는 새만금 개발사업의 후광효과도 기대된다. 현재 새만금 일대에서는 복합리조트와 국제공항, 도로, 항만 등 인프라 개선사업이 계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배후수요와 미래가치도 대거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관계자는 "신규공급이 거의 없던 김제시에 공급된 분양 물량이라는 점과 주거선호도가 높은 전용 80㎡로 구성된 점이 부각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며 "향후 새만금 개발에 따른 높은 미래가치로 투자수요의 문의도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건본주택은 전북 김제시 요촌동 356-3번지에 조성돼 있으며, 오는 8월 특별공급을 진행한 이후 9월 1순위 청약, 10월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지는 16일에 발표하며 21일에서 23일까지 3일간 건본주택에서 계약을 진행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농기센터, 화상병 방제 신청

17일까지... 사과·배 재배 농가 대상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과와 배에 발생하는 화상병(火傷病)을 방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1,800여만원을 투입해 정읍지역 사과와 배 과원 전 면적(164ha)에 대해 사전에 방제할 수 있는 약제비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사과와 배를 재배하는 농가이다.

희망자는 오는 17일까지 사과와 배 과수원이 있는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기술센터는 개화 또는 새싹이 돋기까지 화상병 방제 약제를 살포해야 하는 만큼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기술센터는 화상병은 세균성 병이다. 사과와 배 등 장미과 39속 180여종 기주식물의 잎과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의 조직이 검게 마르고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되는 병이다. 마땅히 치료 방법이 없고 병든 나무를 제거해야 하는 무서운 병으로, 식물 방역법에 따라 국가에서 관리하는 금지병으로 지정돼 있다.

또 한 번 발병되면 반경 100m 이내의 기주식물은 모두 뿌리까지 캐내 폐기해야 하며, 발병된 폐기 과원은 5년 간 사과와 배 식재를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농기센터,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실시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는 '2017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이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농업기술센터와 읍면 사무소 등 총 16개소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를 위해 기술센터는 농업 인과의 소통·공간·동행으로 부안의 앵커 상품 발굴과 농산물 마케팅전략을 수립 하려고 마련됐으며 농업인 애로기술해

소, 핵 심신기술, 농업경영·유통 등 현장 실용기술을 중심으로 영농기술반과 농촌지원반으로 구분해 이뤄진다.

특히 영농기술반은 특화품목을 중심으로 고품질의 식량·원예·특작 생산 기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전 농산물 생산, 농업인의 농업경영마인드 향상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이뤄진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 벽골제 마스터플랜 자문회의 개최

김제시는 7일 벽골제 일원 관광지 마스터플랜 수립과 서부권 스포츠관광 도로, 항만 등 인프라 개선사업이 계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배후수요와 미래가치도 대거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문회의 개최의 목적은 현재 벽골제 주변의 기본계획이 미 수립되어 공모사업 등이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체계적인 개발과 사업 시행부서 간의 유기적 연계방안이 필요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5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김제 지평선축제가 축제 시에만 100만명 이상 방문하지만 일회성으로 그쳐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과 스포츠를 결합한 스포츠관광안전 복합센터 건립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발전적인가에 대해

여 열린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내용은 벽골제 주변에는 생태농경원, 일원권 신홍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용수로 이설, 포교마을 재개발지구 개선사업등 여러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종합계획 미수립되어 마스터플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마스터 플랜시 인접마을을 활용, 숙박 시설과 먹거리, 마을 부흥을 위한 각종 사업발굴과 벽골제와 서부권 스포츠복합센터를 조화롭게 연계, 문화재 보전, 농경문화체험 등 김제시 신동력 먹거리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설득 논리를 개발하라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 되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벼 이외 타작물 재배사업 추진

쌀 적정생산 도모

김제시는 7일 논 벼 이외의 타작물 재배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여 쌀 적정생산을 도모하고 농가소득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나갈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4년연속 품작과 쌀 수입 개방, 지속적인 쌀 소비량 감소로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사상 최대의 재고량(236만톤)을 보유하고 있어 정부는 2018년까지 쌀 적정재고 수준인 80만톤의 감축을 목표로 중장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논 벼 이외의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김제시는 정부정책에 따라 올해 논 타작물 재배목표를 900ha로 설정하여 쌀 재배면적을 감소시킬 예정이다.

쌀 적정생산량 유도 할 품목은 논콩 398, 가공용쌀365, 연근37, 총채벼30, 서류, 채소, 특용작물70, 등으로 농형, 쌀 가공업체,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과 판매계약으로 판로도 확보했다.

또한 쌀 적정생산 운동 전개로 질소 표준시비량을 준수하여 단백질 함량을 낮추고 표준 파종량으로 밀식재배를 억제하여 고품질쌀 생산과 논 이용 벼 대신 타작물 재배로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 적정생산을 유도하여 쌀 수급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요촌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허브화 성과

김제시 요촌동행정복지센터(동장 송해숙)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인 복지허브화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동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해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복지 취약계층에 있는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와 상담을 받거나 해야 했으나 지금은 맞춤형 복지팀을 중심으로 통합사례관리사와 지역사회단체 등이 함께 방문 상담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상담 후 실정에 맞는 개인별 맞춤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는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민관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을 통해 어려운 이웃 111세대(10,000천원상당)나눔을 실천하였으며, 모니터 상담대상자를 포함해 총 753가구를 발굴 상담하고 서비스 연계를 통해 1,802가구에 백미와 생필품 등을 지원한 바 있다. 요촌동 행정복지센터는 복지허브화 성과를 거두면서 인적자원개발·민관협력 확대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위기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and Gansan Beer.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beer cans, and promotional text. The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병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and '부안강산병주' logo. There are also several gift set options listed with prices and quantities.